



5면

통합돌봄 지속성 · 전국화 추진 모색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음 8월 5일) 제309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반가운 변화, 새로운 전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출범식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북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내년 국가예산 8조3000억원 규모

도, 새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올해보다 2700억 ↑

정부예산안 과소 · 미반영 현안 중심 추가 확보키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982건에 8조3,089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12억원 대비 2,773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원, 계속사업은 8조47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은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이에 더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지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감소와 도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 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 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 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막판까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설득함으로써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의 증진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해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 주요 사업들의 특징으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순설도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로 2027년까지 국비 5,657억원을 확보했으며,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계속되던 사업과의 연계·확장으로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집적화 공간 신규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확충 등 도민 경제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전북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생명산업 수도 입지 구축,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가속화 등 전북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

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반영되어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도내 지역 간 접근성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이번 예산 반영을 위해 도·시·군은 탄탄한 공조로 도 중점사업의 막판 심의단계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중점 대응사업(20개)을 선별하여, 도·시군 지역장차관이 합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기재부 핵심인사 및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설득을 통해 12개 사업 391억6,000만원이 반영 됐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를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이탈리아의 맛·멋 내달 전주서 ‘만끽’

전주-이탈리아문화주간, 내달 23-29일

한옥마을 · 세병호 등 전주 일원서 개최

이탈리안데이 · 쿠킹클래스 등 행사 다채

관광거점도시 전주에서 유럽의 역사 문화 심장부인 이탈리아 문화의 정수를 만끽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전주한옥마을과 예곡시터 세병호 등 전주 일원에서 이탈리아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2022 전주세계문화주간-차오, 전주! 이탈리아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는 올해 세계문화주간은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주한이탈리아관광청,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외에 다양한 기관과 업체의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탈리아문화주간에서는 '전주에서 만나는 이탈리아'를 주제로 전주 곳곳에서 다양한 이탈리아의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먼저 24일 세병공원에서 열리는 '이탈리안데이'에서는 이탈리아의 음식과 와인, 커피,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또 전주한옥마을에서 오

목대 전통정원을 중심으로 에스프레소 경연대회와 공연, 마입퍼포먼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전주다시될 독립영화관에서는 28일까지 알레시아스 카르소 감독의 대표 코미디 영화인 '이탈로'와 비토리오 데 시카의 '이탈리아식 결혼' 등이 상영되는 '이탈리아영화페스티벌'이 펼쳐진다.

25일에는 전주푸드 효천정 마을부에서 '이탈리아 쿠킹클래스'가 진행되고, 이번 문화주간 동안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는 단테와 움베르토 에코 등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탈리아문화주간'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1월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을 찾아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달 초에는 대사관 관계자들은 전주로 초청해 행사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 김중훈 정무부지사,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완주 삼례시장 찾아 현장 행정

김중훈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 행정에 나섰다.

김 정무부지사는 30일 완주 삼례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창년물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추석을 대비한 현장 물기도 점검했다.

또한 삼례시장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완주 삼례시장에서는 현재 광장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삼례시장은 2019년에는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그리고 반딧불이

#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022. 8. 27.토 - 9. 4.일

축제 문의 063-324-2440  
www.firefly.or.kr